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프로그램 기획단



2018. 12

김*진

봉사의 대상이 특정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통의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늘 하던 봉사활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눈에 띄지는 않아도 이화봉사단 전체의 보이지 않는 리더가 된 느낌이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은 이것저것 고려해야할 것 투성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려한다는 과정자체도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배움이 되었다. 기획단원들과 함께 기획한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봉사가 이루어졌는지는 결과보고서를 읽어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그 현장에 멀리서나마 먼지만큼이라도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

김*정

이화봉사단 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창의적인 생각도 얻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 각자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멋진 수업 교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뿌듯하면서 신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차가 큰 아이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해서 교안을 짜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아이들이 이번 기회로 영어와 더욱 친숙해지고 흥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외 교육 봉사를 위한 기획은 해본 적이 있으나, 국내 교육 봉사 기획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만 짜는 기획단의 특성상 다양한 지역의 특이사항과 변동사항 모두를 고려해 기획을 해야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영어와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던 것 같다.

이*연

평소 프로그램 기획 봉사를 많이 경험해보기도 했고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 많이 있었다. 교육을 받게 될 대상인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며 세심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기획단 단원들이 모두 노력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저번 한국장학재단 재능봉사캠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다. 더 좋은 수업과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고자 기획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영어라는 주제로 난이도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대를 배려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여러번의 회의를 통해 전공이 다른 기획단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각도 길러나갈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들로 아이들이 재밌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는 그 자체에 아주 만족을 한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국내 봉사단 활동을 매년 방학 때 하면서 직접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단순히 영어 교과목이라고 해서 단어 암기, 문법 지도 등 많은 학교의 수업 방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재미있고 신선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면서 초등학생들이 더 쉽고 의미 있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한 부분에서는 매우 만족스럽다. 특히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학생들이 이해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 부분을 유념하고 추후 영어 공부를 할 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